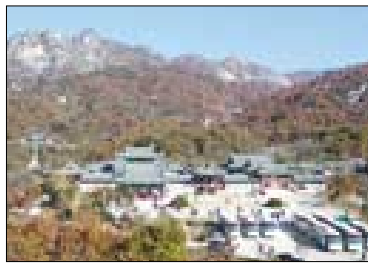


개성 영통사 500년만에 복원

천태종 40억 지원 결실 남북불자 600명 참가 낙성

천태종 종조인 대각국사의 천 스님의 출가 사찰인 개성 오관산 영통사가 폐허가 된지 500년만에 되살아났다.



천태종은 10월 31일 총무원장 운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심상진 스님을 비롯 6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성 영통사(사진)에서 낙성식을 거행했다.

1998년 일본 다이쇼대학 발굴조사 당시 1125년 의천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대각국사비와 3기의 고려시대 탑뿐만이 존재했던 영통사는 2000년 부터 불사가 시작돼 2004년까지 5년동안 26개동으로 복원됐다. 복원사업에는 북한이 건설을 주도하고 천태종이 기와와 단청 재료 등 40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낙성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대각국사께서 11세에 출가하시어 20년간 간수하셨던 영통사가 수불만 우거진 지 500년 만에 대각국의 위용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자비가 아니다"라는 대각국사의 말씀처럼 내것만 고집하지 말고 민족모두의 공복선을 추구하자"고 말했다.

이어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영통사 복원에 동포애적 지원을 하여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남녘의 불교 천태종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남측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부장 정각 스님은 조국통일기원 공동발원문을 통해 "우리들은 민족사에서 존엄높은 통일국가였던 옛 고려국의 수도 개성의 영통사 복원 낙성식을 인연으로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앞길을 열어갈 의지를 담아 부처님전에 간절히 서원한다"고 천명했다.

천태종은 종도들을 대상으로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펼치는 방안을 조율하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은 1일 고려 천태종 분산인 국청사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성 송산 서남 기슭에 절터만 남아 있는 국청사는 대각국사의 모후인 인예태후의 원력으로 7년의 국가적 불사 끝에 고려 선종 6년 1089년 완공한 사찰.

글·사진/개성-김원우 기자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출가해 주석했던 오관산 영통사 낙성식에서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사진 왼쪽)과 조불련 정각 스님이 공동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려 정치제도상 보여주는 대표 사찰”

영통사 복원기념 남북 학술세미나

“영통사는 고려시기 대표적 절 건축의 하나로 당시의 정치제도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당대 국사급 절 건축의 면모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개성 영통사 낙성식이 끝난 뒤 곧바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평양 건재대학 위영철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위교수는 “영통사 주요건물을 복원된 치미 장식은 3국 시대나 조선 시대의 지붕 치미(음나무 양갈 장식 기와)와는 달리 물고기 형상의 새로운 시

대를 띠고 있다”며 “영통사 복원과정에 자체의 고유한 합법적 과정을 밟아온 목구조 기술수법의 한 측면이 밝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국대 김영태 명예교수는 “영통사는 10세기 중반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현존 사료 중 영통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보이는 <균여전>에 균여가 938년에 출가해 영통사 의천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

했다. 김교수는 또 “고려사 등 역사적 문헌들을 보면 영통사는 국왕의 신앙도량이자 왕실의 의호사찰(外護寺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 사회과학원 리장원 부교수는 “영통사터의 묘실터가 의천 스님의 묘실이었다는 것은 <대각국사외집> 등 문헌 기록과 대각국사 비문 발굴자료가 잘 말해 준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국대 이영자 명예교수, 재일본 조선역사고고학회 최호천 회장이 대각국사 사상과 천태종 정종 영통사 복원의 조사발굴 정황 등에 대해



영에 필요한 중무행정, 불교의식, 신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스승 전법관정수계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10월 18일 서울 총지사에서 금강삼매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전국의 스승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스승이 아사리가 되는 의식인 전법관정수계를 봉행하였다.

이날 전법관정수계에서는 중계아사리에 불발심, 일성계, 의강, 하정, 해암기로스승이 위촉되고, 전계아사리에 우승 총리원장, 교수아사리에 법공 전 총리원장, 결계아사리에 시각화전수, 최상관전수, 갈마아사리에 원봉기로스승이 위촉됐다. 전법관정수계식은 개단선언, 삼취정계계승, 참회서원, 오대서원, 수계자 귀명참회, 대아사리 청사

봉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수계를 받은 명단은 지공정사, 해안정전수, 자심관전수, 원당정사, 행원심전수, 해원정전수, 지정정사, 승원정사, 묘원 화전수이다.

한편 총지종은 10월 20일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백월사 불단 이설불사를 봉행했다. 강유신 기자

덕암 스님 부도탑 30일 제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덕암문도회(회장 혜준) 주관으로 11월 30일 오전 10시 태고종림 선암사 부도전에서 덕암당 흥덕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기념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한다. 전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덕암 스님의 부도탑은 태고보우국사의 부도를 본떠서 제작되고 있다. (031) 534-3270

미륵종, 승려단기연수교육

미륵종(총무원장 송정) 제7차 승려단기연수교육이 130여 명 참가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10월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남양주시 대원사에서 개최됐다. 인교식, 용상방 및 교수사 소개, 구족계 강좌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말사운

조계종, LA 서래대에 유학생 파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미국 LA에 소재한 서래대(University of West)에 2006 학년도 봄 학기부터 유학생을 파견하기로 하고, 11월 3일 석사과정 근후 스님, 여학 과정 신원 범준, 효현 스님 등 4명을 선정했다.

이번 유학생 선발은 학사학위이상으로 토플 550점 이상이거나 서래대학의 여학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조계종 소속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했다.

서래대학은 대만 불광산사에서 운영하는 정규 종합대학으로 1년 과정의 여학연수는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을, 대학원은

등록금과 기숙사비의 절반인 7500달러를 지원한다. (02)2011-1801. 조용수 기자

종단협의회장 지관 스님 추대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3일 서울 하림각에서 이사 간담회를 열고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지관 스님을 추대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 회향한 제8차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결과보고, 불지사리 봉행 건 등을 논의했다. 김원우 기자

스리랑카 복지센터

조계종, 연내 착공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센터가 이르면 올해 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현고 스님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총무원장 스님께 스리랑카 복지센터 착공식을 위해 예정대로 12월 중에 진행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10월 12일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스문화사회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 향후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센터는 아동보육과 불교문화교류, 현지인 직업교육 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현재 파견돼 있는 지관 스님과 현지 교민들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스리랑카 복지센터는 콜롬보에서 캔디 방향으로 약 40km 떨어진 위치의 부지 2만 5000여 평에 건립된다. 복지센터에는 1차로 6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 시설과 방문자 숙소, 식당, 보건소, 유치원, 행정실 등이 들어서며, 2차로 한국 전통사찰과 수행체험센터가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수행체험센터에서는 한국의 간화선과 스리랑카 위빠사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진각종, 연인만들기 이벤트

진각종이 연인 만드는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최정호)은 11월 1일 ‘진각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연인만들기-20~30 진각인 매칭이벤트’ 계획을 발표했다. 진각복지재단이 밝힌 ‘20~30 진각인 매칭이벤트’는 20~30대 젊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연인이 되도록 이어주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첫 만남 행사는 12월 1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빅토리아호텔 5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다.

접수는 진각복지재단 중앙사무처를 방문해 직접하거나 팩스(02-942-0146)로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일반인의 경우 6만 원이고, 만월회 회원은 5만 원이다. (02)942-0144-5 김원우 기자

제2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강좌

서울 갈현동 열린선원(원장 법현)이 11월 12일(토)부터 제2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제2기 과정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세계관, 불교예절 등 기초교리를 강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1기 열린불교 아카데미 기초1과정 수료자 및 타 불교 교양대학 수료자이다. 강의는 열린선원 원장 법현스님이 담당한다. 수강료는 무료. (02) 386-4755 김원우 기자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 개원

◆ 2005년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 백운동로터리 광남목재 5층

I. 주요 프로그램 안내

- 명상상담 불교대학
 - 지도법사: 인경스님(동국대, 철학박사)
 - 기초교리: 매일 셋째 금요일 저녁 7시30분-9시 30분 /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개강일: 11월 18일 저녁 7시 30분
- 명상요가
 - 지도: 김형구(전남대, 석사)
 -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8시 30분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8시 30분
- 명상전문 수련과정
 - 지도법사: 인경스님(동국대, 철학박사)
 - 클래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 시간: 매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일요일 오후 4시

※ 상기 학습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프로그램별 주요내용

월	주요내용	날짜/시간
11월	1. 불교예절과 불교 기본관점 - 예배법, 저승명과 범등명	18일(금), 저녁 7시
	2. 인간에 대한 불교의 이해 - 오온과 무아	19일(토), 오전 10시
12월	3.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 - 업, 고집별도, 애착	17일(금), 저녁 7시
	4. 집착과 연기법 - 12연기	18일(토), 오전 10시
1월	5. 불교의 윤리와 실천방법 - 마음, 말, 행동	20일(금), 저녁 7시
	6. 마음의 고요함과 사마타 수행 - 정진, 알아차림, 바른 고요함	21일(토), 오전 10시
2월	7. 지혜의 개발과 위빠사나 수행 - 바른 견과 바른 사유	17일(금), 저녁 7시
	8. 진정한 행복과 범명의식 - 조건화와 궁극적 진리	18일(토), 오전 10시

● 명상상담연구원 광주전남지구 법당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 2동 634-26 광남목재 5층 명상상담아카데미
☎ 062)651-5580 / 011-645-2935

명상상담연구원 <http://cafe.daum.net/medicoun>
Meditation Counseling Research Institute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조실 승산 행원
주지 성광

국제선원
사부대 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02)902-2663